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심판의 비전들

(스가라 5:1 - 11)



스가라 선지자가 이전에 보았던 다섯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주시는 환상은 저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1. 날아가는 두루마리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1절).

눈을 들고 보았다는 것은 경건한 노력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라 선지자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날아가는 것은 빠른 것을, 두루마리는 저주를 말하는 것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빨리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두루마리에는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에스겔 2:10에는 이 두루마리에 제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겔 2:10).

두루마리는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라고 했는데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스가라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는 길이가 10m, 넓이는 5m 나 되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현관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큰 것은 심판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3절).

하나님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온 땅에 내릴 터인데 특히 도둑질 하는 자와 헛맹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십계명 중 1 - 4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 - 10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 판을 받았습니다. 두 돌 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한 돌 판이 1 - 4 계명이고 또 다른 돌 판이 5 - 10 계명이 쓰여진 것이라는 학설이 있고, 1 - 10계명이 쓰여진 두개의 돌 판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둑질 하는 것은 십계명의 후반부를 말하고, 거짓말 하는 자, 헛맹세 하는 자는 1 - 4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집약한 것이고,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 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4절).

하나님은 도둑질한 사람과 거짓 맹세한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기둥과 돌까지도 파괴시킨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전을 건축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가라 선지자가 갑자기 심판에 관한 환상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날이 되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2. 에바 속의 한 여인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7절).

에바는 마른 곡식의 분량을 재기 위한 그릇으로 대개 23ℓ, 약 15되 정도 됩니다. 에바 속에 곡식이 아닌 여인이 들어가 있다면 아직도 빈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죄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죄가 채워지면 곧 심판이 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마 23:32). 이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죄의 분량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죄에 더 붙여 너희의 죄가 합쳐져야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죄가 꼭 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에바는 백성의 죄를 간직한 그릇이며 백성의 죄를 상징하므로 에바는 죄를 재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에바, 곧 부정직하게 장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7절).

납 조각을 들었다는 것은 에바의 뚜껑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한 여인이 그 안에 앉아있었습니다. 여인은 죄악의 상징입니다(8절). 이 여인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 혹은 착취하는 상업주의의 죄를 말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9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밀봉된 채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시날 땅 곧 바벨론으로 옮겨져 그 곳에서 에바가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11절).

백성의 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심판의 확실성을 말한다면 에바 속의 여인은 심판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납덩이는 무거운 심판을 의미하는데 모든 개인과 국가는 죄의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측정기가 잘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리십니다. 측정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빨리 깨닫도록 합니다. 죄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죄를 깨닫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에바 속의 여인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죄인들 위에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날은 반드시 있으며 그 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 가져

오늘 우리교회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주님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축복을 받아 풍요한 삶은 누리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잊어버렸던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오늘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우

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어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수를 갖는다.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맥추 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2004년 전반기 전도상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5명 이상 전도자 명단>

지난 주일로 2004년 전반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전반기 전도에 수고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였다.

전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은 총 880명이며 이중 전도로 등록한 이는 631명 본인이 등록한 이는 24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인 전도대에 의한 등록은 412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70인전도대가 우리교회 전도의 첨병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5명 이상 전도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며 그 명단을 발표하였다. 5명 이상 전도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역군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100명 이상: 심명숙 집사 조(김영희, 임인선, 이선희, 이명순) 박이선 집사 조(김옥, 장기숙, 이현주, 임명숙)
- 20명 이상: 이인숙 권사 조(서경선)
- 15명 이상: 김동진 집사 조(김미성) · 김찬진 권사
- 10명 이상: 전하미 집사 조(김은태)
- 5명 이상: 김정애 집사 김영숙 집사 조(송인숙) 서경애 권사, 박성금 집사 조(남경숙, 김영호), 김은순 집사 조(김경희), 양춘경 집사 박춘자 집사 조(전숙향), 이난화 집사 장정화 권사 조(이창희), 최혜순 권사, 이영희 권사, 김재진 목사, 최은석 집사

이상 36명

2004 농촌전도대 분천중앙교회로 파송기로 하다

하나님 나라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8월10일(화) - 13일(금)까지 4일간

우리교회는 2004년 농촌전도대를 분천중앙교회(엘리아 남선교회 후원)로 파송기로 하였다. 분천중앙교회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에 소재한 교회로 지난 1966년 설립되었고 1999년 교회를 재건축하였다. 교회현황은 장년 30여명, 중고등부 5명, 유치등부 10명으로 매우 미약한 전형적인 벽촌 교회이다. 그러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약 350여명으로 복음 전도의 밭은 널찍한 편이다.

이번 농촌 전도대는 주제를 하나님 나라와 디아스포라로 잡고 사방으로 흩어진 잃어버린 생명들을 잡고 모으는 일에 전력하게 된다. 전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파송 예정 인원은 총 50명으로 의료6, 이미용10, 주방10, 전도10, 시설/홍보4, 성경학교6, 기타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농촌 전도대에 참여하여 함께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금번 전도대의 주제찬송 259장(빛의 사자들)이여)처럼 복음이 미약한 저곳에 우리교회 성도들이 파송 받은 빛의 사자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분천중앙교회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위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빠르게 번역되기를 위하여 서울강남노회를 거쳐 총회에 현의하여 3년 전부터 이종윤 목사를 위원장으로 총회 차원의 전문 위원들의 수고로 재번역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타교단과 협력하기 위해 총회는 이를 일단 보류하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현의, 60개 교단이 파송한 위원들로 재조직하고 여기서도 이종윤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재번역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지난달부터 시작한 바 있다.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알고 이 일이 교단간 잘 이루어지도록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한 또 하나의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북중미 지역에 우리교회 설교방송 실시간 방송

CTS 기독교 TV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로, 실시간 시청 가능

보다 폭 넓은 선교활동을 위해 방송설교에도 많은 시간을 내보내고 있는 우리교회의 방송설교(이종윤 목사 설교)가 북중미 지역에도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현재 우리교회 방송설교가 나가고 있는 CTS 기독교 TV에서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로 북중미 지역(미국 전역, 캐나다, 멕시코)에 방송을 시작하여 실시간으로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방송설교를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CTS 기독교TV에서 우리교회 방송설교는 케이블 채널 42번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에 방영되고 있다.

육사교회 50년사에 서울교회 헌신

육사교회 50년사(1952 ~ 2002)가 지난 5월30일에 발간되었다. 500면에 이르는 역사책 속에 서울교회의 헌신이 9회 이상 언급되어 한국 근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94년부터 육사교회는 신입생을 위한 합동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서울교회의 헌신적 후원이 있었음을 크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육사 졸업생 파송예배도 지원해 온 서울교회는 3사단과 23사단의 세례식 지원과 비전 2020 운동의 모델 교회로 부각되고 있다.

공산권에서 신학생 배출

우리교회는 3년 전 동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신학교를 개설한 후 지난 달에는 11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북한 선교의 기수들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들의 사역을 위해 교회는 이종윤 목사님과 배의 장로님들을 파송하여 졸업식에 참여케 하였고 신학 교육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6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귀순 강박규 강판래 교육자 공태경 박유정 박진오 김강영 김계임 김다은 김막단 김민수 김민지 김민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훈 김수현 김수자 김순례 김영한 김영호 김용진 김윤희 김재성 김재홍 김경이 김준희 김한재 김화경 김효인 나순복 마하린 맹부기 명연준 문준철 문준호 박기양 박성민 박수민 박수민 박순규 박정희 박준민 박찬숙 박찬욱 박훈욱 박홍래 배금어 백혜영 서혜옥 석혜빈 소원영 송창근 송한나 송한나 신금전 신용진 신항범 신현기 신희선 오규남 오세준 오연년 오장섭 우미란 유다연 유은철 윤영화 윤준범 이경진 이명원 이병도 이봉임 이상훈 이철형 이승훈 이진에 이요한 이인복 이종구 이주형 이지연 이태규 이필녀 이현숙 이협진 인계선 임규철 임우경 임정숙 장규숙 장동철 장남남 장태희 장현정 전복선 전상현 전영미 전주연 정경옥 정민철 정순복 정영미 정 옥 정임득 정종환 조민수 조영희 조진수 오세길 조혜은 지경옥 지승현 최원경 최혜규 최효선 한정삼 한민기 한선현 한성에 한성재 한승태 한정욱 한주목 함선진 홍진희 홍혜경 황사현 황수림 황아진 황정필 황지남 G. R. Ritzke, Mrs. Ritzke, Miss Ritzke, P. S. Prince, Shabag 이상 138명

천국일꾼양성-여름성경학교·수련회를 준비하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여름수련회



노한장로(교육위원장)

7월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이지만 모든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7월에 교회학교에서는 7월14일부터 열리는 대학부와 청년부의 여름수련회를 시작으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신혼가정부, 사랑부, 예배다부, 장년부 그리고 스테반회와 장로회의 여름수련회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고 요즈음은 해외로까지 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재충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온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며 맘을 흘리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 단기선교와 농촌

전도대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순례자와 주보에 발표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일정을 자세히 보시고 먼저 자신이 해당되는 여름수련회에 참가하여 깊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고의 맘을 흘리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교사들의 영적인 충만과 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맘 흘리며 수고한 농부들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며 기뻐하는 것처럼 온 교회와 교사와 학생들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의 가을을 기대하며 이 여름 함께 맘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일꾼양성-고등부 학부모 일일교사를 마치고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난화 집사(13교구)

두 주일 전에 장로님께서 고등부 부모 일일교사를 부탁 하셨을 때 망설여 지기만 하였습니다. 고등부에서 보내주시는 편지에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간증형식으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은?"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내가 과연 저들에게 간증을 들려줄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리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18절을 읽고 학생들에게 꿈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갖고 있다면 또한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항상 기쁘게 살며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너의 비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간증을 곁들여 얘기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겐가 꿈은 가진 자가 이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가진 자가 이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부디 주님 안에서 삶의 비전을 갖도록, 저들의 인생관과 인생의 가치관이 오직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기를 강조하며 그럴 때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로 들어서는 고등학교 시기가 우리나라에선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때라고 여기고 있지만 지식 위주의 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학교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은 잠재된 의식 속에 계속해서 쌓일 것이고 앞으로의 삶속에서 커다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도 체험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고등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제4기 단기선교팀 개인기도제목

기도회에는...



오정수 장로 (제4기 단기선교팀 단장)

- 단기선교기간동안 모든 대원들 어려움 없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언제 무슨일을 하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윤국목사 (제4기 단기선교팀 지도교역자)

- 방글라데시 땅이 생명을 품는 땅이 되도록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과 생명과 진리가 가득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최형렬 집사

- 방글라데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단기선교팀에서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 민족복음화가 방글라데시에도 일어나도록.



이명철 집사

- 단기선교 기간동안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손재영 학생

- 함께 가는 대학부 지체들 모두 영육적으로 강건하도록.
-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유수진 성도(대학부)

-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 영적으로 무장되고 육적으로 강건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다음주 계속)

만민에게 전도 - 2004 전반기 전도상 수상자 인터뷰

아름답도 다! 전도자의 발걸음 이어...



심명숙 집사(1교구)

지난 년 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도상을 수상한 심명숙 집사의 생활은 오로지 전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녀에게 전도는 생활 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첫 제 주에 서울교회에 등록한 심명숙 집사는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서울교회가 이곳 대치동에 있음을 알고 범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은 일찍부터 사모했던 터였고, 이제 서울에 정착했으니 교회에서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간 외국 생활을 수 차례 하긴 했지만 어쨌든 30년 동안 강남에 살면서 이제는 강남 지역의 복음화에 자신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심 집사 자신이 나서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 집사는 5기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6기에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전도학교를 수료한 후 곧 바로 전도에 뛰어들었다. 물론 이전에도 전도를 했었지만 그때는 마음만 앞설 때가 많았는데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체계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대치 지역은 물질과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그 어떤 지역보다 어렵지만 성실함으로 일관된 그녀의 전도 자세로 인해 점차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

한 번은 청실 아파트 상가에서 옷 가게를 하는 이를 전도했는데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친구, 친척 등 족히 60명쯤 되는 손님을 데리고 간 것 같다고 한다. 거의 6개월에 걸친 방문 끝에 그 분이 교회에 나왔고 심 집사는 있는 대로 진이 빠져 있었지만 한편으론 하던 된다는 생각에 힘이 솟았다.

유년부 교사인 남편 박찬성 집사는 전도를 잘한다고 소문난 아내 덕분에 유년부에서 전도 부장을 맡아 가끔은 부부가 함께 유년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으로 나간다.

사실 이번 전도상은 본인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겸손해 하는 심 집사는 올 초부터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닌 김영희 집사, 임인선 집사, 이명순 집사, 이선희 집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들과 함께 다녔기에 더욱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노라고 말한다.

심명숙 집사, 그녀는 서울교회 예배당 빈자리에 백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집을 나선다.



박이선 집사(11교구)

올 상반기 역시 전도상을 수상한 박이선 집사가 전도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1988년 다락방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다락방장을 맡고 보니 책임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락방 식구들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락방을 부흥시켜 보자는 생각으로 당시 거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한 전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때는 전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을 때였고, 어찌 보면 두서없이 전도를 했는데,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교회로 따라오곤 하였다. 어떤 면으론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아름답게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박 집사는 줄곧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갖난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전도에 온 힘을 쏟았다. 박 집사는 전도학교 4.5기 출신이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두 번을 계속해서 들었다고 한다. 전도하는 그녀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70인 전도대이다. 박 집사는 70인 전도대의 다른 전도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피차에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힘을 얻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으고 중보기도를 힘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 주일 동안 다락방 모임이 있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지역에서 전도를 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녀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이오지만 그때마다 박 집사는 전도란 결코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녀 역시 전도의 노하우가 따로 없다. 다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혹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시간 투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전도자 박 집사에게 가장 큰 후원자는 누구보다 가족이다. 나름대로는 빈틈없이 집안을 꾸린다고는 하나 어찌 부족함이 없으랴.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격려를 해주니 고마움 따름이다. 그 중에서도 86세 되신 시모님은 전도 때문에 항상 동분서주하는 며느리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신다.

전도를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변화된 삶이 모습을 보일 때 박 집사는 전도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런 기쁨을 알기에 그녀는 전도하면서 받는 푸대접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심만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늘도 전도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허숙(편집부)

교육 1국 학부모 초청 간담회

9일(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교육 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는 오는 7월 9일(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교회 1국 소속의 모든 교회학교 교사와 지도 교역자 그리고 학부모가 참석하는 가운데 열렬 이반 간담회는 교회학교 교장이신 이종윤 목사의 "자녀교육과 교회학교의 역할"이라는 주제 특강을 듣고 이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교육과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개요를 교회학교별로 지도교역자들이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교회학교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18일(주) 개강, 초급반-705호, 고급반-606호

에바다부 수화교실이 오는 7월 18일(주) 오후 1시에 개강한다. 농아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장소는 초급반-705호(강사: 남원석 교사, 왕경애 집사), 고급반-606호(강사: 김용주 선생)이다. 이번 수화교실은 12월 26일(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수화교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정

- 박정선 장로는 세계 합창 올림피아드에 심사위원으로 6일 독일로 출발
- 독남: 김도연 이선주 성도 가정(9교구) 2일(금)
- 주간 식당행사: 마리아 여전도회(7월 1일) 에스더 여전도회(7월 11일)
- 금요일아침당부서: 장년부(7월 9일) 사랑부 에바다부(7월 16일)
- 금주의 식사: 홍성주 장로 여현진 권사(장인 장례를 마치고) 명세법 집사, 장인숙 집사 가정(부친 장례를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